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1. 오늘 주일예배는 2022년 신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2. 예결산 모임 2022년 1월 9일, 예결산 제작회 1월 16일, 예결산 공동의회 1월 23일 (오후 5시, ZOOM)
3. 마인츠 중앙교회는 토마스 교회가 따르고 있는 방역지침 (2G) 에 따라 현장 예배 참석자는 명단을 작성하시고 모든 예배에 미접종자 참석은 불가합니다.
4. 이태성 장로님께서 휴무를 갖습니다.(6월 30일까지)
5. 2022년 교회 표어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린도후서 5:9)
6. 2월 임직자(안수집사, 권사) 후보 선정과 3월 임직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 지난 주일 (26일) 전도선교부에서 켈른 나승필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찬양으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난민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선교비도 전달했습니다.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 이정수, 이태성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01.02	소병찬	
01.09	이혜영	
01.16	박윤순	
01.23	정향림	

후원 선교지

- 키르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켈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온라인 현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55

:: 온라인 현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l
감사헌금 - Dankopfer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월경헌금 - Monatskollekte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현금은 비교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익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2022년 표어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9)

Darum suchen wir auch unsere Ehre darin, daß wir ihm wohlgefallen, sei es daheim oder nicht daheim. (2.Korinther 5:9)

제37권 1호 2022년 1월 2일

주일예배

1부 12:00 / 2부 15:00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2부)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552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94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소병찬 장로
봉 헌	Kollekte	549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고린도후서 5:9	인도자
찬 양	Lobpreis	송축해 내 영혼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교회여 일어나라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안내

- 주일 1부예배 주일 12:00 본당
- 주일 2부예배 주일 15:00 본당
- 수요 예배 수요일 20: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원/초등 주일 12:00 별관
-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년부 예배 주일 12:00 별관
금요일 20:00 본당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Johannes 1:1 Im Anfang war das Wort, und das Wort war bei Gott, und Gott war das Wort.

2022년 담임목사 새해 인사

마인츠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새 해 인사드립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해의 소망을 품은 밝은 태양이 떠 올랐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인류 곁에 머물며 삶을 제한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정은 제한하지도 막지도 못한다는 것을 지난 2년 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금새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는 습관화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 같은 날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21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2022년 문턱에 들어서니 더 크게 느끼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며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내딛었으니 또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마인츠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주님을 위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신과 겸손한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2일 신년예배를 드리며
담임목사 한성호 드립니다.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무신론자가 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깁시다!*
- 주기철

*Is there no God? Then let's become atheists!
But is there really the God? Then, let's serve with sincerity and passionate love!*
- Chu Ki-chol

예수님께서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모두 동원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가슴과 손발과 생각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거나 어떤 한순간의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성과 마음을 다한 뜨거움으로 사랑하십시오.
2022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제목

- 우리를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새해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사 선한 열매를 맺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 각 기관과 부서가 성령충만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 주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가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나승필, 박다니엘, 백경진, 서원민, 이만민, 이재은, 이정호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시며 성령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